

우리말과 프랑스어의 보조어 및 술어의 構造比較

高 元 禧

Les phrases mal faites oppressent la poitrine, gênent les battements du coeur, et se trouve ainsi en dehors des conditions de la vie.

—Gustave Flaubert—

<目 次>

- | | |
|--------------------|--------------|
| I. 序 論 | 2. Prédicats |
| II. 文法體系 比較 | III. 結 論 |
| 1. Eléments Outils | |

I. 序 論

오랫동안 佛語學研究에서 홀로 군림하던 전통적인 文法研究方法은 科學的인 기준의 결여로 인하여 構造主義 言語學에 의하여 점점 빛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Dubois와 Pottier에 의하여 導入된 構造主義 자체가 뚜렷한 方法論을 제시하기도 前에 美國의 變成方法이 불란서에 상륙하게 되어 一部 構造主義 言語學者는 自動的으로 變性文法研究로 方向을 전환하여 佛語學界는 전통문법의 固守論者와 行動主義的 構造主義論者와 變成文法論者가 함께 共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變成文法自體에도 Harris式 분석을 시도하는 M. Gross와 Chomsky式 方法도입을 시도하는 N. Ruwet등이 서로 다른 方向으로 佛語에 對한 研究를 추진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構造主義的인 接近이 言語의 심층구조를 다루지 않고 日常會語中心의 研究를 한다고해서 佛語教育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최초의 佛語접촉을 構造主義 접근의 한 가지 方法인 시청각적인 方法으로 始作함으로써 言語에 대한 호기심과 실제 사용하고 싶은 의욕을 길러줄 수 있고, 보다 자연적으로 言語를 습득하는 습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그러한 構造主義的인 國語爲主의 方法이 보다 유익하지만 問題는 文語와의 연결이 문제이고 또 佛語의 文法構造를 어떻게 教育하느냐가 문제이다.

文法構造의 教育에 앞서 우리는 어떤 文法을 가르칠 것인가를 定하여야 하는바, 보다 간단한 해결책으로서 한가지의 text, 예컨대 Mauger의 교과서를 택할 수도 있으나 어떤 text를 택하든 우리는 우리말과 佛語의 構造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에 관해서 보다 명확한 지식을 갖는것

| | |
|--|--------------------------------------|
| <u>à</u> + lieu | lieu + <u>로</u> |
| <u>à</u> + personne | personne + <u>에게</u> |
| F의 <u>à</u> 의 경우 C가 sur-différencié 되었다. | |
| avec { impatience violence } | { impatience violence } <u>하게</u> |
| de + { lieu temps } | { lieu temps } + <u>에서</u> |
| de + complément | complément + <u>의</u> |
| { durant pendant } + temps | temps + <u>동안에</u> |
| { dans en } + lieu | lieu + <u>에</u> |
| <u>en</u> + qualité | qualité + <u>로서</u> |
| <u>hors</u> + lieu | lieu + <u>밖에 (서)</u> |
| <u>pour</u> + lieu | |
| <u>pour</u> + personne | personne + <u>에게 / 위하여</u> |
| { pour comme } { animé inanimé } | { animé inanimé } <u>로</u> |
| <u>vers</u> { lieu direction } | { lieu direction } <u>로</u> |

(ii) 비슷하면서 다른 경우는 C와 F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몇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a) C에서 쓰는 助詞와 F에서 쓰는 전치사가 같아 보이면서 다른 경우 즉 arracher, voler, ôter, ravir, acheter, prendre, dérober 등이 취하는 전치사와 C의 그에 해당하는 助詞들이 취하는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C→F 경우에 특히 틀리기 쉽다.

(ex) Quelqu'un arrache le livre à mon frère.

누구 내형에게서 책을 빼앗는다.

Il vole un sac à main à un passant.

그는 행인에게서 핸드백을 훔친다.

이러한 例는 C와 F에서의 방향에 관한 論理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 | |
|-------------------------------|-----------------|
| voler qqch. <u>à</u> qqn | 아무개에게 무엇을 훔치다 |
| arracher qqch. <u>à</u> qqn | 아무개에게 무엇을 뜯어내다. |
| emprunter qqch. <u>à</u> qqn | 아무개에게 무엇을 빌리다. |
| dépouiller qqch. <u>à</u> qqn | 아무개에게 무엇을 빼앗다. |

(c) 경우에 따라서는 (b)의 반대인 때도 있다. 즉, C에서는 사람인 목적보어를 간접으로 쓰는데 F에서는 사람인 목적보어를 직접목적보어로 받는다.

| | |
|------------------------------|-------------------|
| F | C |
| (ex) Je remercie M. Kim. | 우리는 김씨에게 감사할 드린다. |
| accompagner mon oncle. | 아저씨에게 동행한다. |
| consulter ses parents. | 양친에게 상의한다. |
| habiter cette ville. | 이 도시에 산다. |
| saluer le drapeau tricolore. | 三色旗에 경례 하다. |

(b) 예와 같이 (c)에서는 목적어가 두개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간접이 되는 반면 F의 몇몇 동사 (ex) saluer, remercier, prier 등은 사람을 직접보어로 택하는 동사로서, remercier의 경우 de+q.ch를 갖게 되면 그것이 간접목적어가 된다.

| |
|---|
| F |
| (ex) Je vous remercie d'acheter une bicyclette. |

C
나는 당신에게 자동차를 사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d) C의 助詞와 F의 전치사의 비교에서 F가 sous-différencié된 경우가 있다. 즉 F에서 심층구조가 다르면서 표면구조가 동일한 것이 C에서는 한가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 |
|-------------------------------|----------------------------------|
| F | |
| (ex) La visite des parents. : | { 친척들의 방문. 친척들에 대한 방문. |
| Le train de Genève. : | { Genève行 기차. Genève에서 오는 기차. |

(e) F의 거의 비슷한 전치사가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 |
|-------------------------------|-------------|
| F | |
| { être <u>dans</u> la classe. | { 교실안에 있다. |
| { être <u>en</u> classe. | { 수업중이다. |
| { être <u>dans</u> une ville. | { 도시에 있다. |
| { être <u>en</u> ville. | { 시내에 있다. |
| { être <u>à</u> l'école. | { 학교에 있다. |
| { être <u>dans</u> l'école. | { 학교 안에 있다. |

| | |
|--|--|
| <p>{ Je l'ai vu <u>dans</u> ce voyage. Il est <u>en</u> voyage.</p> | <p>{ 나는 이 여행<u>중</u> 그것을 보았다. 그는 여행<u>중</u>이다.</p> |
| <p>{ Il arrivera <u>dans</u> deux jours. Il arrivera <u>en</u> deux jours.</p> | <p>그는 이를 <u>후에</u> 도착할 것이다. 그는 이를<u>걸려선</u> 도착할 것이다.</p> |
| <p>{ Je l'ai perdu <u>dans</u> la voiture. Il est allé <u>en</u> voiture.</p> | <p>나는 그것을 자동차 <u>속에서</u> 잃어버렸다. 그는 자동차로 갔다.</p> |

(iii) C의 助詞와 F의 전치사가 서로 직접 관계가 없고 우리말의 助詞가 붙어의 전치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를 몇가지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a) C에서 助詞로 표시되는 것이 F에서 ϕ 표는 ordre 어순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 | |
|---|----------------------------|
| C | F |
| 주격조사: <u>이</u> / <u>가</u> | ϕ , 어순 |
| 내가 <u>거기</u> 에 가겠다. | Je vais y aller. |
| 호격조사: <u>아</u> / <u>야</u> | ϕ |
| 복동아, <u>엄마</u> 가 부른다. | pok-Dong, maman t'appelle |
| 접속격의 나열조사: | <u>먼</u> / <u>랑</u> ϕ |
| 너는 사과 <u>랑</u> , 배 <u>랑</u> , 과자 <u>랑</u> 다 먹었다. | |
| Tu as tout mangé, des pommes, des poires, (et) des bonbons. | |

(b) C에서 助詞가 F에서 접속사로 표시되는 경우:

| | |
|----------------|---|
| C | F |
| 너와 나는 오랜 친구이다. | Toi et moi, nous sommes <u>de</u> vieux amis. |

(c) C에서 助詞가 F에서 부사가 되는 경우:

| | |
|--|---|
| C | F |
| 나의 선생님도 음악을 좋아한다. | |
| F | |
| mon professeur <u>aussi</u> aime la musique. | |

(d) C의 조사가 F의 접속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 | |
|------------------|----------------------------------|
| C | F |
| 당신도 <u>알다</u> 시피 | <u>comme</u> vous le savez bien. |

(iv) C에 있는 형식이 F에 전연 없을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F에서 다른 형식으로 되거나 F에 있고 C에 없는 형식이 되는 경우는 그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가령 F에서 형용사가 뒤에 보어를 취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취하게 되는 전치사와 C의 조사는 때로는 비슷하게 때로는 단지 대조를 이루게 된다.

(a) 먼저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F에서 전치사 "à"와 C의 "에" 또는 "

에서 "의 경우라고 하겠다.

| | |
|---|-----------------|
| F | C |
| (ex) Ce livre est facile <u>à</u> lire. | 이 책은 읽기에 쉽다. |
| L'eau est utile <u>à</u> l'homme. | 물은 人間에게 有用하다. |
| être attentif <u>au</u> changement. | 변화에 주의하다. |
| Cette fille-là n'est pas convenable <u>à</u> toi. | 저 처녀는 너에게 맞지않다. |

단지 형용사 비교를 나타낼때 F에서는 같은 경우에 "à"; 틀리는 경우에는 "de"가 되는데 C에서는 항상 "와" "과"가 된다.

| | |
|--|-------------------|
| F | C |
| Une méthode { pareille } <u>à</u> la tienne. | 너의 방법 |
| { semblable } | 과 { 같은 } 방법 |
| | { 비슷한 } |
| Une attitude différente de ton père. | 자기 아버지의 태도와 다른 태도 |

(b) 그밖에 F에서 "pour" "envers" 같은 경우, 즉 행동이 상대를 향한 경우에는 C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사 전성조사"에" "에게" "위하여" 등의 C조사와 큰 차이 없는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 | |
|--|-------------------------|
| F | C |
| Soyez respectueux <u>envers</u> vos maîtres. | 선생님들에게 정중히 하세요. |
| Ne soyez pas <u>cruels</u> envers les animaux. | 동물에게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
| Il est mort <u>pour</u> la patrie. | 그는 나라를 <u>위하여</u> 죽었다. |
| ardent <u>pour</u> la propagation de la foi. | 믿음의 전파를 <u>위하여</u> 열렬한. |

(iii) 그러나 이유, 원인이나 出身, 거리등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F의 전치사 de는 C에서 그에 알맞거나 비슷하게 되는 조사가 없고 의미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다.

| | |
|--|---------------------|
| F | C |
| (ex) Un enfant âgé <u>de</u> cinq ans | 다섯살 된 아이 |
| être amoureux <u>de</u> X. | X를 사랑하다. |
| Ils sont contents <u>de</u> leurs enfants. | 그들은 어린 애들에게 만족하고있다. |
| être heureux <u>de</u> Y. | Y 하며 기쁘다. |
| être originaire <u>de</u> Z. | Z 出身이다. |

(c)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뒤에 sujet réel(眞主語)가 되는 부정법이 올때에는 à가 아니고 de를 사용한다.

F

C

- (ex) (a) Un livre facile à écrire. 쓰기 쉬운 책
 (a)' Il est facile d'écrire un livre. 책을 쓰기는 쉽다.
 (b) Une pomme bonne pour manger. 먹기 (에) 좋은 사과.
 (b)' Il est bon de manger une pomme. 사과를 먹는것은 좋다.

(a) (i) 전치사 à를 취하는 형용사

accessible, adroit, agréable, attentif, bon, cher, comparable, conforme, contraire, commun, convenable, difficile, docile, exact, facile, fidèle, favorable, habile, indifférent, indispensable, inutile, lent, nécessaire, nuisible, opposé, pareil, propre, prêt, propre, responsable, semblable, sensible, utile, etc.

(ii) 전치사 de를 취하는 형용사

âgé, amoureux, capable, certain, content, coupable, curieux, désireux, digne, fier, fou, furieux, heureux, honteux, impatient, impossible, inquiet, incapable, jaloux, las, libre, mécontent, malheureux, orgueilleux, plein, possible, proche, reconnaissant, responsable, riche, satisfait, soucieux, sûr, voisin etc.

이상과 같은 경우 "à"는 목표도달 등을 표시하고 "de"는 단순히 idée 즉 ".....하는 것"만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으나 여하튼 우리말과는 조직적인 對比가 어렵다. 그러나 眞主語가 온다고해서 부정법앞에 반드시 de가 붙는 것이 아니고 falloir, sembler, valoir 같은 경우 전치사 ϕ 가된다.

- (a) Il fant manger trois fois par jour.
 (b) Il me semble avoir vu cette vedette.
 (c) Il vaudrait mieux marcher à pieds.

(e) F에 있는 형식이 C에 없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F의 동사가 동사를 보어로 갖을 때 취하는 전치사라고 하겠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à"와 "de"이고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형식이 C에 없음으로 해서 학습상 중심적으로 지도해야할 문제이다. 물론 이미 간단히 언급한바와 같이 "à"는 행동, 행위의 대상, 방향, 목적을 나타내고 그에 비하여 "de"는 어떤 idée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된다. 따라서 F의 동사의 보어가 되는 부정법 앞에 붙는 전치사는 우리말과의 비교관점에서 보다는 F를 위주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이나 전통문법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주고있다. 실상 이러한 전치사 문제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C의 조사와 F의 전치사 비교의 계속으로 동사와 따로 다루는 것이 C와의 비교면에서 그 차이를 보다 뚜렷하게 해준다는 이유에서 동사와 분리

했다. 우리는 동사와 그 부정법보어의 관계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즉 (i) 전치사를 취하지 않는 경우 (ii)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iii) 같은 동사가 다른 전치사를 취함으로써 뜻이 달라지거나 뜻에는 관계없이 다른 전치사를 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i) (a) 직접타동사적으로 쓰이는 동사

compter, devoir, désirer, daigner, faillir, faire, falloir, laisser, nier, oser, pouvoir, prétendre, savoir, vouloir, valoir, etc.

(b) 지각에 관한 동사

entendre, regarder, sentir, voir.

(c) 판단에 관한 동사

affirmer, assurer, avouer, considérer, croire, déclarer, paraître, raconter, sembler, etc.

(ii) (a) “à” 를 취하는 동사

aboutir, accoutumer, amener, arriver, aspirer, autoriser, chercher, commencer, consentir, contraindre, contribuer, encourager, entraîner, forcer, habituer, obliger, parvenir, renoncer, s'abaisser, s'appliquer, s'adonner, se borner, se mettre, s'obstiner, se résigner etc.

(b) “de” 를 취하는 동사

achever, accuser, avertir, craindre, détester, dissuader, douter, empêcher, essayer, éviter, feindre, finir, jouir, mourir, ordonner, oublier, pardonner, permettre, persuader, presser, prier, promettre, proposer, recommander, refuser, remercier, reprocher, supplier, tâcher, se dépêcher, se garder, se hâter, se lasser, se moquer, se priver, se souvenir, se soucier, se passer, se vanter etc.

(c) 한개 이상의 전치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

일부 동사 commencer, continuer, contraindre, s'efforcer, s'ennuyer, forcer, obliger, solliciter, etc. 같은 경우는 “à” 나 “de” 중에 어느 것을 취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어떤 동사는 manquer, parler, tenir 등과 같이 뒤에 오는 전치사에 의해서 뜻이 전혀 달라지고 또 이미 본바와같이 많은 동사들이 직접목적보어 간접목적보어에 따라서 전치사를 달리 쓴다.

(ex) Il manque à son devoir (그는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

Il manque d' argent. (그는 돈을 필요로한다.)

Il s'est empressé de partir (그는 급히 출발했다.)

Il s'empressent à secourir les pauvres.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중한다.)

2. Predicats(술어)의 比較

1. 형용사 비교

이미 본바와 같이 F의 형용사는 C에서 (a) 관형적인 것과 (c) copule적인 자동사와 함께 서술부를 이루는 attributif(속사적)인 것으로 나누어 진다.

후자에 관한 부분만 C의 형용사와 비교하기로 하겠다.

C의 형용사는 동사와 같은 자격의 용언으로서 서술기능을 갖고 있어서 동사로 간주되고 때로는 記述動詞(verbe descriptif)의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실은 형용사 자신이 용언이 아니고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orme finite가 될 경우 서술종결부를 취함으로써 용언이 기능을 하게 된다. “색깔이 희다” “La couleur est blanche” 에서 “희” 는 형용사로서 뒤에 시제 Temps-이 경우에는 ϕ -과 법 mode을 나타내는 “다” 가 붙어있다.

즉 C와 F의 형용사는 전자가 형용사에 法과 時制를 포함시켜 하나의 단위처럼 나타내는데 비하여 후자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時制와 法은 동사가 나타낸다. 따라서 상태를 나타내는 C의 형용사가 명령법(청유형포함)을 갖지 않으며 태(voix)와 목적보어나 접속법에서 의도형, 목적형 등을 가질수 없는것은 본래 C의 형용사가 F의 être+Adj에 해당한다는 것을 상기 할때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고 시제에서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데도 F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의 도움을 얻어서만이 가능한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F와 C의 형용사가 보여주는 차이는 전자의 경우에 형용사는 수식어와 속사가 다 될 수 있고 주어나 목적어가 의무적으로 性과 數의 일치를 이루는데 비하며 C에서는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속사가되며 관형어로 될때는 F에서와는 달리 형태를 변형하고 또 性과 數의 일치는 없다는 점이다.

(ex) 이 테이블은 둥글다. Cette table est ronde.

이 테이블들은 둥글다. Ces tables sont rondes.

한가지 부언할 것은 C의 형용사 활용이 동사하고 비슷한 것을 형용사와 동사 자신이 비슷해 서가 아니고 본래 형용사와 동사가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종결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C와 F에서 형용사의 통사구조를 살펴보면:

| C | F |
|----------------------------------|---------------|
| Adj, Complet + Morph. Auxi 1 + | Copule + Adj. |
| 완전 형용사 + 보조문법소 1 + | 연결동사 + 형용사 |
| Auxi. pred + Morph. Auxi 2 + 1FP | |
| 서술보조어 + 보조문법소 2 + 종결부 | |

따라서 형용사에 한해서 F→C 경우 보다 C→F가 쉬운것은 C의 형용사 용언이 복잡한 반면 F의 형용사가 하위구분이 없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단지 C→F에 있어서 性과 數의 一

致는 下級學年 文法연습에서 강조하여야 할 문제이다. 형용사와 형용사의 수식어와의 결합문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아니다.

| C | F |
|--------------------|------------------------------|
| Modificateur + Adj | Modificateur + Adj |
| 아주 행복하다. | être <u>très</u> heureux |
| 대단히 아름답다. | être <u>extrêmement</u> beau |
| 아주 근면하다. | être <u>bien</u> laborieux. |

F와 C의 형용사 시제의 차이는 실상인즉 F와 C의 동사가 시제 차이기 때문에 동사에서 살피보기로 한다.

그리고 F의 형용사가 C에서는 동사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점이 또한 특이하다.

(ex) Il est content de son travail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M. Kim est amoureux de Mlle. pak.

金氏는 박양을 사랑한다.

Brisée par la fatigue, elle s'endort.

피로에 지쳐서 그 여자는 잠자고 있다.

2. 동사 비교

C와 F의 동사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먼저 어미변화 Conjugaison에 의해서이다. C에서는 동사가 어간을 변하지 않고 어미변화에 의해서 法(mode)과 時制(temps)을 표시하는 반면에 F에서는 法(mode)이 결정되면 인칭과 수 그리고 복합시제의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性에 의하여 동사 형태가 변한다는 점이다. C에서는 인칭 수가 전연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비하여 F에서는 인칭수는 형태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표시하고 있다.

| F | C |
|---------------------|------------------|
| Je <u>parle</u> | 나는 <u>말한다</u> . |
| nous <u>parlons</u> | 우리는 <u>말한다</u> . |

분석해 보면

| F | |
|---------|----------------|
| "parle" | : 동사어간 |
| "e" | : 직설법 1인칭 단수현재 |
| "ons" | : 직설법 1인칭 복수현재 |

| C | |
|------|---------|
| "말하" | : 동사어간 |
| "ㄴ" | : 현재표시 |
| "다" | : 無標서술형 |

를 표시하고 있다. 法(mode)이라는 용어는 C에서는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F에서는 型(forme)이 C의 法에 해당하며 F의 法은 직설, 명령, 조건, 접속으로 나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다. F의 불규칙과 C의 변칙도 전자가 인칭수에 의한 변화에서 일정한 定型에 따르지 않는 것을 가르키고 후자는 인칭과 수에는 관계없이 형용사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뒤에 연결되는 의문부와 결합에서 조음상의 변화를 갖어 오는 동사를 가르키므로 양자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C에서 평서, F에서 직설의 서술형 이외는 모두 變形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變形部分으로 돌리고 이상의 두가지를 中心으로 비교해 볼까 한다.

먼저 F와 C의 동사 하위분류를 살펴보면

| F | C |
|---|--|
| 조동사 (verbe Auxiliaire) | 서술보조어 (Auxiliaire predicatif) |
| 자동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자동사(verbe Intransitif) 불완전 자동사(verbe Intransitif incomplet) | 자동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
| 타동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타동사(verbe Transitif Di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치사 없이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간접 타동사(verbe Transitif Indi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치사의 중계를 통하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 타동사(verbe Intransiti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어를 갖는다. 직접목적어뒤에는 “을” / “를” 간 접목적어에는 “에게” |

로 나뉘고 또 동사가 인칭보조대명사를 취하는 代名動詞와 비인칭 주어를 택하는 비인칭 동사가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C와 F의 동사는 一見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점이 많다.

(a)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F는 직접목적, 간접목적용 동사 우측에 취하고 대명사화될 경우에만 좌측에 두는데 비하여 C에서는 항상 원칙적으로 좌측에 두며

| F | C |
|--------------------------------------|------------------------|
| (ex) André écrit <u>une lettre</u> | 앙드레는 <u>편지</u> 를 쓴다. |
| Avez-vous acheté <u>ces fleurs</u> ? | 당신은 <u>그 꽃</u> 을 샀습니까? |
| -Oui, je <u>les</u> ai achetées | 네, <u>그것</u> 을 샀습니다 |

(b) F와 C에서 一部 타동사가 취하는 목적어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생략하여 자동사처럼 보이는 것은 공통적이고,

| F | C |
|---------------------------------------|------------------------------------|
| (ex) Il faut <u>manger</u> pour vivre | 살기 위해서는 <u>먹어야</u> 한다. |
| Pierre <u>lit</u> beaucoup. | 파에르는 <u>독서</u> 를 많이 <u>한다</u> . |
| <u>Ouvrez</u> doucement | 조용히 <u>여십시오</u> |
| Voici votre soupe, <u>mangez</u> | 여기에 당신의 수우프가 있습니다. <u>잡수</u> 세요 |

목적어의 유무에 의해서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되기도 하고,

| F | C |
|-----------------------------------|---------------------------|
| (ex) { Le temps <u>passé</u> vite | 시간은 빨리 <u>지나간다</u> . |
| { <u>Passez-moi</u> cette revue | 그 잡지를 저에게 <u>넘겨 주세요</u> . |
| { <u>Poussez</u> la porte | 문을 <u>미십시오</u> |
| { Le blé <u>pousse</u> | 보리씨가 <u>돌아난다</u> . |
| { Pierre <u>monte</u> l'escalier | 피에르는 계단을 <u>오른다</u> |
| { Le ballon <u>monte</u> | <u>氣球</u> 가 <u>올라간다</u> |
| { Je fume du <u>tabac</u> | 나는 담배를 <u>피운다</u> . |
| { La cheminée <u>fume</u> | 굴뚝이 연기를 <u>내 뿜는다</u> . |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취하기도 하고 간접목적보어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 F | C |
|--------------------------------------|--------------------------------|
| (ex) Il <u>a vécu</u> une vie aisée. | 그는 평안한 일생을 <u>살았다</u> |
| Ils <u>parlaient</u> de moi. | 그들은 나에게 관해서 <u>이야기하고 있었다</u> . |

그러나 이미 F의 전치사와 C의 조사의 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F와 C의 직접타동사 간접타동사는 일치하지 않는다.

| F | C |
|--|-------------------------|
| (ex) Ils <u>regardent</u> les bateaux. | 그들은 배(船)를 <u>쳐다본다</u> . |
| Je <u>remercie</u> mon professeur. | 나는 선생님에게 <u>감사드린다</u> . |

(c) F에서는 두개의 동사의 하나가 직접목적어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가 간접목적보어를 요구하는 경우 각각 목적보어는 同一名詞이지만 目的補語를 反復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C와의 특이한 差異點의 하나라고 하겠다.

| C |
|---|
| 어린애는 양친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해야한다. |
| F. { L'enfant doit obéir et respecter ses parents. (×) |
| { L'enfant doit respecter ses parents et <u>leur</u> obéir. (○) |

| C |
|---|
| 나는 네시간에 베르샤유에 가서 돌아온다. |
| F. { Je vais et je reviens de Versailles en quatre heures. (×) |
| { Je vais à Versailles et <u>d'en</u> reviens en quatre heures. (○) |

(d) F에서는 間接補語를, C에서는 直接補語를 취하는 동사인 경우

| F | C |
|--------------------------------|--------------|
| (ex) échapper <u>au</u> danger | 위험을 모면하다. |
| changer <u>de</u> train | 기차를 바꿔 타다. |
| jouir <u>de</u> qqch. | 무엇을 즐기다. |
| manquer <u>de</u> qqch. | 무엇을 안가지다 |
| nuire <u>à</u> la santé | 건강을 해치다. |
| disposer <u>de</u> qqch. | 무엇을 생각되로 하다. |
| renoncer <u>à</u> qqch. | 무엇을 단념하다. |
| médire <u>de</u> qqn. | 아무개를 비방하다. |
| douter <u>de</u> qqn. | 아무개를 의심하다. |
| penser <u>à</u> sa mère | 어머니를 생각하다. |

(e) 목적보어가 두개 있을 경우 F에서는 사람이 직접목적보어가 되고 사물이 간접목적보어가 되는데 反하여 C에서는 그와 반대현상이 되는 경우:

| F | C |
|-----------------------------------|-------------------|
| (ex) averti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알리다. |
| informe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通知하다. |
| préveni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豫告하다. |
| pourvoi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供給하다. |
| entreteni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다. |
| félicite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치하하다. |
| remercie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감사드리다. |
| charger qqn. <u>de</u>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委託하다. |
| engager qqn. <u>à</u> faire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하기를 약속하다 |
| prier qqn. de faire qqch. | 아무에게 무엇을 부탁하다. |

(f) 불완전 자동사 즉 보어를 必要로 하는 자동사의 경우는 비슷한 용법을 보이고

| F | C |
|---|-------------------------|
| (ex) Cet élève <u>semble</u> travailleur. | 이 생도는 근면하게 <u>보인다</u> . |
| Elle <u>a l'air</u> fatiguée | 그 여자는 피로해 <u>보인다</u> . |
| Il <u>devient</u> un grand musicien | 그는 위대한 음악가 <u>되</u> 니다. |

동사가 다른 동사와 결합될 경우 F와 C에서 어순이 바뀌면서도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F C

(ex) nous aimons jouer 우리는 놀기 좋아한다.

F와 C에서 다같이 두개의 동사가 결합된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F C

(ex) Je compte visiter Paris l'année prochaine 나는 내년 빠리를 구결할 작정이다.

Il est venu vous apporter ce livre. 는 당신에게 이책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F에서는 결합된 두 동사중 원형으로 쓰인 동사는 단순한 개념만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하튼 두 동사가 갖는 뜻을 그대로 지니는데 C에서는 두 동사가 합하여 하나의 보강된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例. 물건을 잃어버리다.
 새를 봐주다.
 헛소리를 지껄여 쌓는다.

(g) 따라서 버리, 주, 쌓, 등은 서술보조어로 F의 조동사와 같이 활용하는 요소이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기능을 맡고 있다. 즉 F의 조동사는 주로 時制를 표시하는데 쓰이나 C에서의 시제는 용언 = { 동사 }
 { 형용사 } 뒤에 오는 시제 문법소 morphème temporel이 나타내며 서술보조어가 있으면 시제문법소는 그 뒤에 붙는다.

F C

(ex) J'ai marché { 나는 걸었다.
 { 나는 걸어 갔다.

F의 서술부조동사 구조와 C의 서술부 동사 + 서술 보조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 F | | | | C | | | | | | |
|------|--------|--------|------|------|------|-----|------------|-------------------|------------|------------|
| 주 어 | 조동사 | 본동사 | 기타요소 | 주 어 | 기타요소 | 본동사 | 연 (문법)소 | 결 서 술 보 조 어 | 시 (문법)소 | 제 종 결 부 |
| J' | ai | donné | × | 나는 | ×(를) | 주 | 어 | 버 리 | 었 | 다 |
| Elle | serait | partie | | 그여자는 | | 떠나 | ∅ | 버 리 | 었 | 다 |

F→C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C→F의 경우에는 특히 조동사 avoir와 être의 선택문제와 être를 복합시제 조동사로 쓸 경우 주어의 性과 數에 一致시키는 문제:

F에서 他動詞는 勿論 自動詞로 大部分이 avoir의 現在에 過去分詞를 붙여 複合時制를 만들지만 小數의 自動詞들만 être를 助動詞로 하며 複合過去를 만들고 있다. 그러한 自動詞들을 보면:

aller, venir, arriver, rester, partir entrer, sortir, rentrer, monter, tomber, descendre, revenir, retourner, naître, devenir, mourir etc.

주어와 성과 수에 一致하는 例文을 보면

- F C
- (ex) { Je suis allé à la campagne } 나는 시골에 다녀왔다.
 { Je suis allée à la campagne }
- { Il est rentré à six heures } 그는 여섯시에 돌아왔다.
 { Elle est rentrée à six heures } 그 여자는 여섯시에 돌아왔다.

b) avoir를 조동사로 하였을 경우 직접목적보어가 동사에 선행하면 직접목적보어와 과거분사가 일치하는 문제:

- F C
- (ex) quelle régle avez-vous apprise? 어떤 규칙을 배웠습니까?
 Il nous a méprisés 그는 우리들을 경멸했다.

c) 시제문제에 있어서 일면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먼저 C-F에서 시간을 과거(passé) 현재(présent) 미래(Futur)로 나누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하겠으나 시간의 세분에 의한 구분이 다르고 보다 구분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점에 문제가 있다.

직설법의 경우만 보면 :

시제의 종류

| F (verbe) | | C (verbe & Adjectif) |
|---|--|---------------------------------|
| A | B | |
| Futur 미래 Futur Antérieur 전미래 | | Futur 미래 |
| présent 현재 | | présent 현재 |
| Imparfait 반과거 passé Composé 복합과거 plus que parfait 대과거 | passé simple 단순과거 passé Antérieur 전과거 | passé 과거 passé Antérieur 대과거 |

F에서는 直說法의 여덟가지의 時制를 -아직 끝나지 않은 동작과 이미 끝나버린 동작 - 두개로 分類할 수 있다.

| | 아직 끝나지 않은 동작 | 이미 끝나버린 동작 |
|----|-----------------|---|
| 現在 | 現在: J'écris | 複合過去: J'ai écrit |
| 過去 | 半過去: J'écrivais | 大過去: J'avais écrit 前過去: J'eus écrit 單純過去: J'écrivis |
| 未來 | 單純未來: J'écrirai | 前未來: J'aurais écrit |

F의 현재진행 (현재와 同一), 근접미래 (aller+ infinitif), 근접과거 (venir de + infinitif), C의 현재진행등은 정식시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시켰다. 그리고 F의 B는 文語와 historique로서 日常言語 밖의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여하튼 F가 sur-différencié되었기 때문에 C→F, F→C의 두가지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 F | C |
|------|------------------|--------------------|
| Fut | (ex) Je parlerai | 나는 말하 <u>겠다</u> . |
| | J'aurai parlé | |
| prs | Je parle | 나는 말하 <u>나</u> 다. |
| pass | Je parlais | 나는 말하 <u>였다</u> . |
| | J'ai parlé | |
| | J'avais parlé | 나는 말하 <u>였었다</u> . |

형태적인 고찰을 간단히 하자면 F에서는 Racine 즉 Infinitif와 avoir의 현재 “ai” “as” “a” 등과 그리고 동사현재 및 반과거 어미 “ais” “aïs” “ait” 등을 가지고 모든 시제를 표시할 수 있고 C에서는 미래에 “겠”, 현재에 “ㄴ”, 대과거에 “ㅆ었” 등의 시제문법소(morphème temporel)을 종결부 전에 부침으로서 시제를 표현한다.

그러나 시제면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F에서 시간은 (i) 직선적인 분할이고 (ii) 시제 상호관계의 차이 표시에 역점을 두며 -예를 들면 未來와 前未來, 半過去와 大過去の 관계등- (iii) 현재의 성격이 과거와 미래의 시제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과거 및 미래 시제의 구분과 용법을 터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C에서는 (i) 시간분할이 주관적이고 관념적이며 (ii) 시제 상호간의 관계차이 표시는 별로 중요성이 없으며 한가지 형태로서 여러가지 개념을 나타낸다. 즉 “었” 으로 과거와 현재 완료적인 개념, 때로는 대과거로 나타낸다. (iii) 현재의 용법은 F에서와 비슷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미래시제들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면 추량을 나타내는 시제문법소 “겠” 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모두 쓰여 추량을 표시하는바 그러한 추량에 관한것은 mode上的 문제로 변형부분으로 미루고 현재 이후의 시제에서 예정을 나타내는 “겠” 만 직설법의 미래로써 취급하였다.

“겠” 은 순수한 시제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순수한 시간적인 “~rai” “~ras” “~ra” 의 F 미래보다는 영어의 will, shall과 더 가깝다고 하겠다.

F→C의 경우, 즉 佛文韓譯의 경우에는 우리말에서 시간에 대한 엄격한 contraintes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C→F의 경우 즉 佛作의 경우에는 F의 시제는 커다란 난관이라고 보

겠다.

그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로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F의 현재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선 F에서는 現在의 事實을 表示하는데 a) 繼續的인 意味를 가지는 경우와 b) 一時的인 意味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a) Je les attends depuis une heure. 나는 그들을 한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b) Je vous conseille de sortir. 당신에게 外出할것을 권합니다.

다음 例文에서는 두가지 경우를 찾아낼 수 있다.

c) Je ferme la fenetre parce qu'il pleut.

나는 창문을 닫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이와같이 F에서는 현재진행을 현재시제로 表示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F의 현재가 표시하는 것을 대충적으로 보면:

(i) 恒久的 普遍的인 事實이라고 보이는 動作 狀態를 表示하는 경우:

On nous a enseigné que la terre tourne autour du soleil.

Les passions aveuglent l'homme

(ii)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습관 및 시간적 지속을 表示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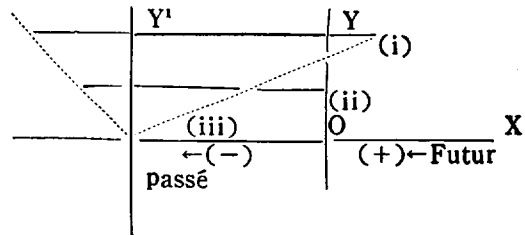
Tous les jours, je me lève à six heures.

La femme est dans un état misérable.

(iii) 현재의 순간:

Je montre le livre(maintenant)

도표로 표시해 보면



(i) →현재 (ii)→ 반과거 (iii) ○복합과거
판언하면 진리는 항상 현재이고, 현재를 ○로 하였을 경우의 습관, 시간적인 지속은 과거에서 반과거가 되고, 현재의 순간적인 행위는 과거에서 복합과거가 된다.

끝으로 être: (이다)와 avoir: (있다) 동사를 우리말과 비교해 보겠다.

| | | |
|---|--|------|
| F | | C |
| (a) Etre | | 이다 |
| (i) verbe Auxiliaire | | (i) |
| ① participe passé와 함께 voix passive를 만들며 | | ① △ |
| ② 一部 자동사의 participe passé와 함께 Temps composé를 형성한다 | | ② △ |
| (ii) Locutions verbales | | (ii) |

- | | |
|--|---------------------------------|
| ① Impersonnel Il + être= Il y avoir | ① △ |
| ② Être + à= appartenir | ② △ |
| (iii) verbe plein: 존재를 나타낸다 | (iii) △ |
| (iv) copule: Sujet와 Attribut를 연결한다. | (iv) copule |
| Être + Attribut $\left\{ \begin{array}{l} \text{Nom} \\ \text{Adj} \end{array} \right\}$ | Attribut Nom=이다 |
| (ex) ① Il est étudiant | (ex) ① 그는 학생이다 |
| ② Je suis fort | ② △ |
| ※ Attribut로서 Nom, Adj들을 취할 수 있다. | Attribut로서 Nom 만 취한다. |
| (b) avoir | 있다 |
| (i) verbe Auxiliaire | (i) |
| ① Transitif의 participe passé와 함께 Temps composé를 형성한다. | ① △ |
| ② △ | ② ...하고+있다, 에서 현재진행을 표시한다. |
| (ii) Locution verbale: | (ii) |
| ① avoir + à=devoir | ① △ |
| ② Il + y + avoir=être | ② 있다= Il y avoir |
| (ex) <u>Il y a</u> des boîtes | (ex) 상자들이 <u>있다</u> . |
| <u>Il y a</u> beaucoup d'arbres dans ce jardin | 이정원에는 많은 나무들이 <u>있다</u> . |
| (iii) verbe plein | (iii) verbe plein |
| avoir=posséder | 있다=avoir |
| (ex) Le professeur a une fille et un <u>garçon</u> . | 선생님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u>있다</u> . |

Ⅲ. 結 論

言語의 現象은 人間의 삶의 現象과 같이 全體가 部分的인 것이 集合이 아니다. 全體의 構造속 에 部分이 位置하고 있을 때, 部分의 價値가 確實히 認定될 뿐만 아니라 그 意味의인 實在도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全體 構造의 테두리 속에 있을 때 部分的인 構造가 意義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langue usuelle의 文法論的인 事項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이미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terme à terme한 비교가 아니고 C를 母語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주로 教育上의 問題를 두고 C→F, F→C의 문제를 다루었다. 비교도중에

말及한것과 같이 C에서 있고 F에는 없는 형식 -例컨데 서술보조어의 처리등 -도 F를 배울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그 보다는 F에 있는 형식중에서 C의 형식과 꼭 같지 않거나 전연 없는 경우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술부의 分類만 보더라도 F와 C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F와 C에서 Complément d'objet와 Attribut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F의 Copule 이 Nom, Adj인데 비하여 C에서는 Nom에 한하고 F에서와는 달리 C의 Adj는 prédicatif statut를 갖으며 F에서는 Mode와 Temps Composé를 verbe가 나타내나 C에서는 별도의 Morphème를 써서 표시하며 Mode를 indicateur Final de proposition이 표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는 주로 文法的인 기능을 나타내는 (a) 時制를 만드는데 쓰는 verbes Auxiliaires의 용법과 동사활용, (b) terme과 terme을 연결하는 prépositions { simples } { composées } 등이 특히 중요함을 볼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고찰은 佛語와 우리말의 言語構造를 比較하는데 의의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 文章形成을 爲한 準備라는데 그 意義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J. Dubois: Grammaire Structurale du Français. I. II. III. Larousse.

M. Gross: Analys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Syntaxe du Verbe, Larousse Grevisse, M., Le Bon Usage, Paris, Geuthner, 1950.

内 藤 滄 共著 「實習 フランス文典」 白水社, 1966.

目 黑 三 郎 德 尾 俊 彦 共著 「新フランス廣文典」 白水社, 1967

田邊貞之助 「現代フランス文法」 白水社, 1968

최 현 배: 우리말본. 정음사